일 주 문



출판기념 토크콘서트

종연 인천 수미정사 회주 스님은 4월 21일 오후 6시 30분 인천 씨앤케이웨딩 컨벤션서 '출판기념 자비나눔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국제선센터 특별강연

탄웅 서울 국제선센터 센터장은 4월 1일 국제선센터 대각전에서 동국대 법인사무처장 성효 스님 초청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불교상담대학 · 대학원 추가 모집

가섭 불교상담개발원장 스님은 3월 31일까지 2017학년도 불교상담대학 · 대학원 신입생을 추가모집 한다. (02)737-7378



조계종 성역화불사 기부

김의정 조계사 신도회장은 3월 22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한불련, 제15회 포교사 품수식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회장 인경)는 3월 19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제15회 교육능력평가(포교사) 고시 합격자 연수 및 품수식을 실시했다. 1부에서는 前 정각원장 법산 스님의 법문과 포교사증 수여 및 품수식이 있었으며 2부에서는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원장의 '마음테라피' 특강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부고 **진각종 무외정사 별세**



진각종 종의회 부의장 무외정사가 3월 23일 별세했다.세수 59세, 법랍 33년. 무외 정사는 1984년 동국대 불교대학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인도 델리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장례식장은 영남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25일 오전 6시 대구교구장으로 식이 진행됐다.

화촉 양선호 조계종 교육원 주임은 4월 15일 피에스타귀족 강남 1층 노블리티홀에서 정은혜 양과 화촉을 밝힌다.(02)501-7000



"국난극복·화합 위해 광화문서 모이자"

Interview

4월 5일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여는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불교는 국난 위기에서 대장경 조판과 팔관회 개최 등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탄핵 이후 일고 있는 갈등을 봉합하고 한국 고유의 전통이 다시금 국민들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 이번 문화대축전을 마련했습니다."

4월 5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2017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을 앞두고 행사를 준비해 온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이번 축전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했다.

이번 행복바라미 대축전은 특히 대선과 탄핵 갈등 속에서 국민화합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각당 대선 주자들에게 행사 참가 초청장을 보낸 상태이며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참여가 확정된 상태다. 행사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행사의 시작은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의불 이운'으로 시작한다. 도선사가 네팔 룸비니에서 채화한 평화의불을 광화문광장 봉화대에 점등하는 행사다. 점등은 스님들과 정관계 인사들이 함께 진행하며 점등을 시작으로 2만 소원성취 촛불등이 점화된다. 이어 2만 불자들의 금강경 독송이 평화의 타종 등과 함께 진행되며 평화기원문 발표도 진행된다.

이에 앞서 광화문 광장에서는 오후 4시부터 불교연합합창단의 음성공양과 법고시연 등이 펼쳐진다. 광장 한복판에는 문화재인 내소사 괘불이 전시되며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부스도 마련된다.

금강경 독송 정진 등 진행

대선주자 평화의불 점화 예정

시민 참여 통한 국민축전 기대

이기흥 회장은 "국태민안을 염원하는 행사로 시민들이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며 "불교내부로 보면 불자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신행 단체들 간 역량을 모으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축전을 시작으로 행복바라미 캠페인은 4월 7일부터 22일까지 나눔문화 캠페인과 지역문화제로 확대 전개된다. 나눔문화캠페인은 행복바라미 기부함을 설치한 전국 500여개 모금소에서 진행되며 지역문화제는 인천, 천안, 청주, 화성, 강릉, 전주, 대구, 부산, 광주, 울산에서 펼쳐진다.

이기흥 회장은 "5주년을 맞은 행복바라미는 출범 당시에 비해 2배 이상 성장한 상태"라며 "부처님오신날을 기해 불자들과 시민들이 기부한 금액을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행사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며 동참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韓中日대회, 9월 서울 봉은사서 개최

종단협, 제주도서 제20차 대회 예비회의



한 · 중 · 일 불교계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제20차 한국대회가 오는 9월 서울 봉은사서 열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는 3월 23일 제주 중문 롯데호텔서 각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회의를 개최하고, 9월 6~8일 서울 봉은사서 제20차 한국대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또한 3국교류위원회의, 세계평화기원법회, 학술강연회 등을 진행키로 결의했다. 주제는 '3국 불교우호교류의 지속가능한 교류발전'으로 선정했으며, 발우공양과 대규모 전국불교합창단이 참여하는 '보현행원' 축하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예비회의에는 한국 측 종단협 사무총장 월도 스님과 상임이사, 중국 측 중국불교협회 수석부회장 명생 스님 등 10명, 일본 측 일중한 국제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 타케카쿠쵸 스님 등 9명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동양 역학, 과학적으로 입증할 터"

소재학 박사, 동국대에 FCA과정 개설



흔히 풍수지리하면 떠오르는 '배산임수'는 옛 조상들이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지혜의 산물이란 분석이 있다. 이처럼 풍수지리와 사주명리 등 한국 전통 역학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강좌가 열린다.

소재학 박사는 최근 동국대에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 과정'과 'FCA풍수지리최고지도자과정', 'FCA현대사주학 석하명리최고지도자과정' 등을 개설했다.

소재학 박사는 이를 통틀어 '동양미래예측학'이라고 설명했다. 소 박사는 "사주명리나 풍수지리 등에 숨겨진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맹신하다보면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없다"며 "과학적 이론체계에 따른 현대 역학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공부해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 박사는 "작명과 선천성격분석, 인연법 등을 면밀히 살펴 꾸준히 공부하면 자신이 나갈 때와 물러날 때 등을 명확히 찾을 수 있다. 이 것이 바로 동양의 미래예측학"이라고 강조했다.

동국대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 과정 4기는 3월 16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40분 수업이 진행된다. 주임교수인 소재학 박사를 필두로 명리학자, 풍수지리학자, 관상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연에 나선다. 강좌는 영상으로도 제공된다. 2학기 과정 수료 후에는 무료 반복 수강이 가능하다.

노덕현 기자

IOC임원단, 월정사서 불교체험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와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3월 16일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을 비롯한 IOC집행위원들을 초청해 사찰음식 만찬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과 중앙(전국)신도회 회장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해 이희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IOC임원단은 월정사 탐방을 시작으로 사물놀이 관람, 강원도립 무용단 승무공연 등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입학식



국내최대 도심 불교교육도량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는 3월 17일 대구큰절에서 2017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엔 올해 전국 10여개 도량에 입학하는 신입생 3,000여명이 자리했다. 신입생들은 앞으로 2년 간 불교기본교리와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등 교육받게 된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문화사업단 · 대전국제센터 MOU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수암)과 대전국제교류센터(센터장 송경헌)는 국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3월 21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 지역 거주외국인을 중심으로 템플스테이 및 사찰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활동 지원 등을 약속했다. **박아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3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